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신석하 KID 거시금융연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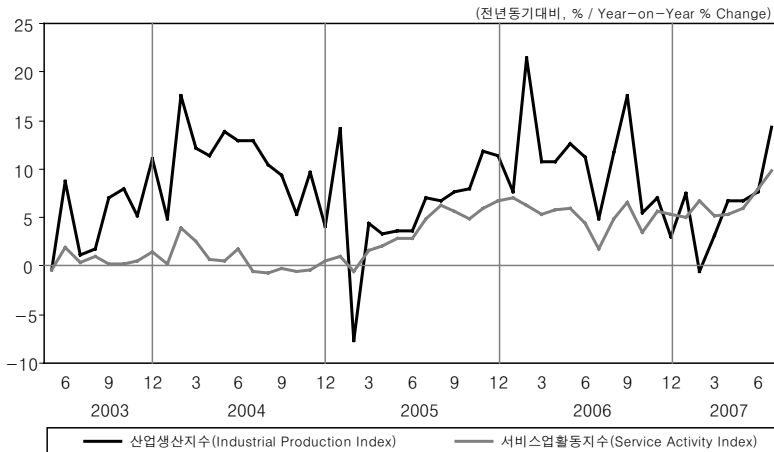
## 1 경기 동향 및 평가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확장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대외여건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금년 1/4분기 이후 생산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내수 및 수출도 현재까지

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기술적 반등요인을 감안할 경우 금년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7월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및 영상음향통신을 중심으로 전월(7.7%)에 비해 크게 확대된 14.3%의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 증가율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작년 7월에 자동차부품 파업과 집중호우 등 이례적 요인으로 산업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음을 감안하면 금년 7월의 높은 증가율은 이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생산도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의 높은 증가세와 더불어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7월중 9.8%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작년 7월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반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성항목이 호전됨에 따라 경기종합지수는 7월 중 상당 폭 개선되었다. 7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5p 상승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에 비해 0.4%p 상승하여 금년 1/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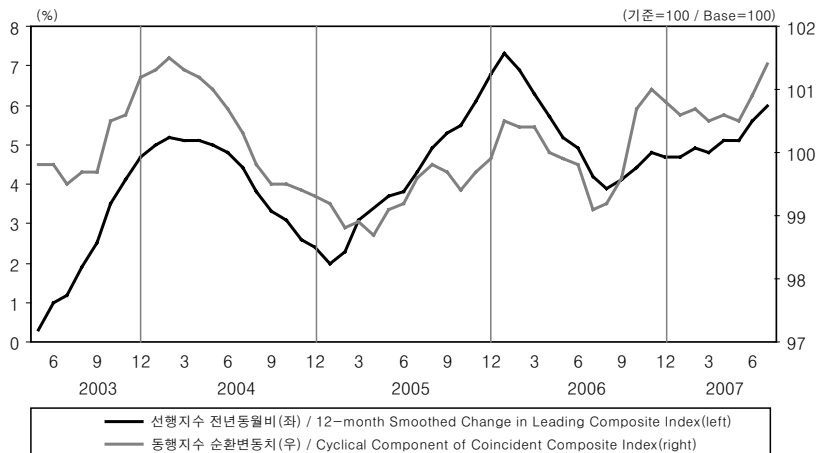
내수항목중 소비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관련 지표들은 일부 둔화되는 모습이다. 7월중 소비재판매액지수가 9.8% 증가하여 전월(4.9%)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년 7월에 위축되었던 자동차 등 내구재판매가 21.9% 증가하는 등 기술적 요인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소비는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비자평가 및 기대지수는 각각 91.4와 102.6을 기록하여 올 1월 이후의 개선추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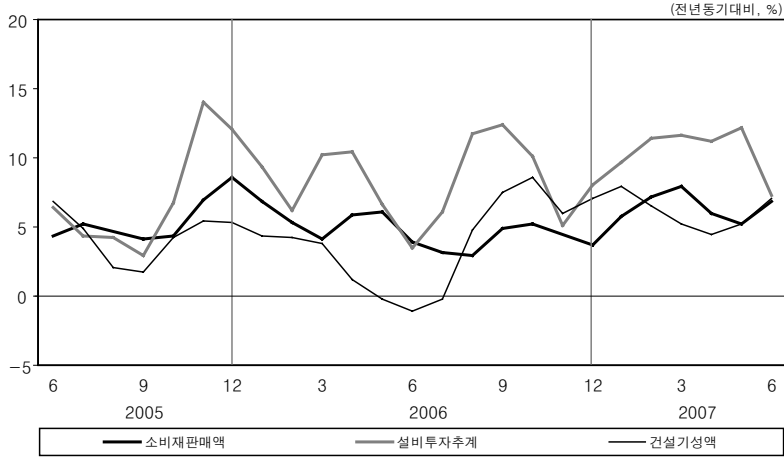
설비투자의 경우 금년 들어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및 IT부문 등의 투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7월중 설비투자추계는 1.3% 증가하여 전월(9.2%)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월(4.1%)보다 크게 확대된 36.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상당 부분 기술적 반등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기성액이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민간주택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7월중 건설기성액의 증가율이 전월(4.2%)에 비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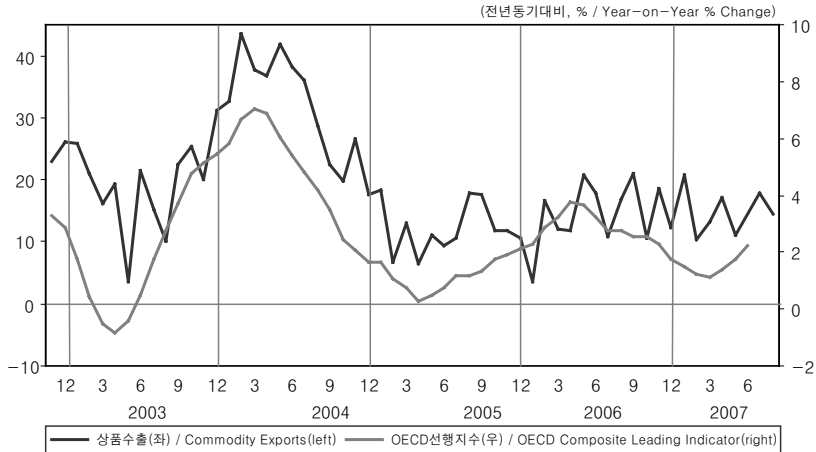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소비 및 투자관련 지표(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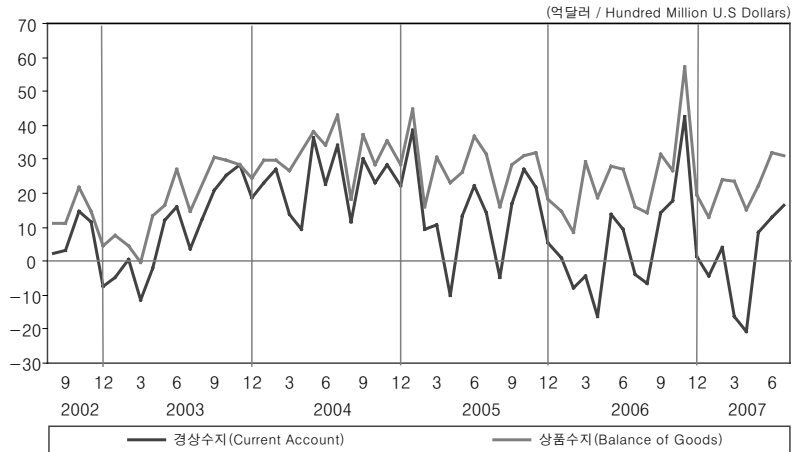
상품수출 및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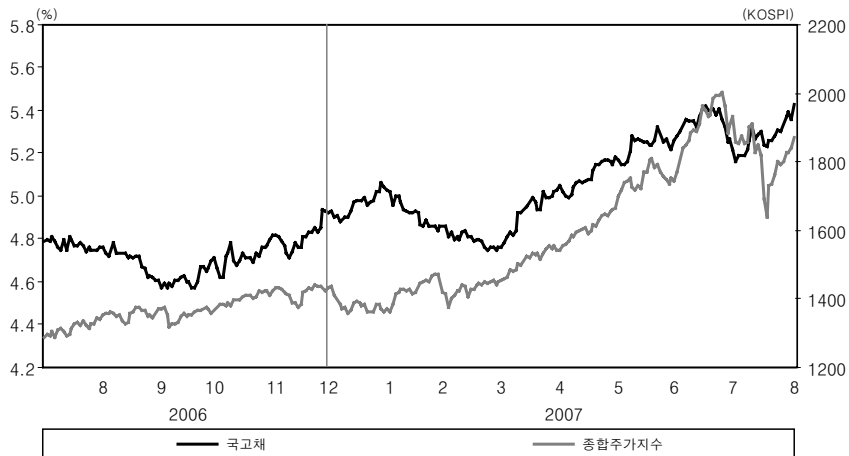
된 12.4%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건설실적이 부진했던 데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민간주택부문의 급락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이다.

한편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 중 수출은 14.4% 증가하여 2006년 2월 이후 19개월 연속 1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세가 금년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국고채 수익률 및 종합주가지수



3월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세가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규모는 5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이다.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확장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여건의 개

선추세도 유지되는 모습이다. 계절조정 실업률과 고용률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7월 중 취업자수가 30만 3천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의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중 큰 폭으로 하락한 농축산물가격에 기인하여 소비자물가가 최근 추세(2.5% 내외)를 크게 하회한 2.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곡물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3%를 기록하였다.

한편 금융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최근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콜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고채 수익률이 8월말 현재 전월말 대비 21bp 상승한 5.43%를 기록하였으며, 종합주가지수는 8월 17일에 1,638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8월말 현재 1,873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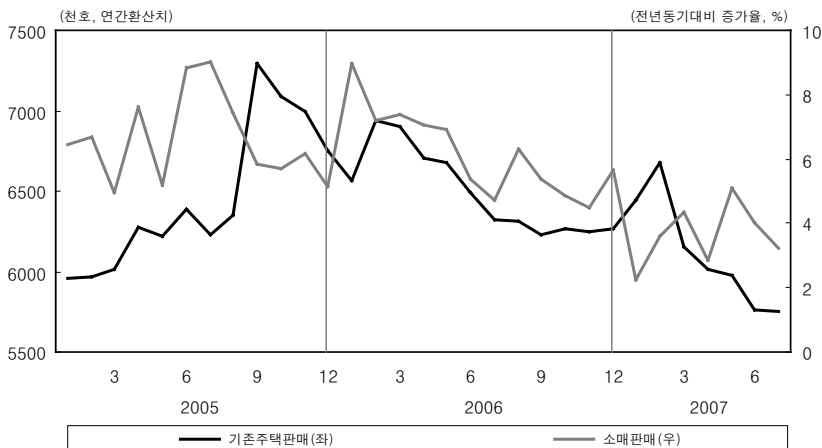
## II 대내외 경제여건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 경제와 유로경제가 견실한 모습을 지속하는 반면, 일본경제의 호조세가 연초에 비해 다소 약화되고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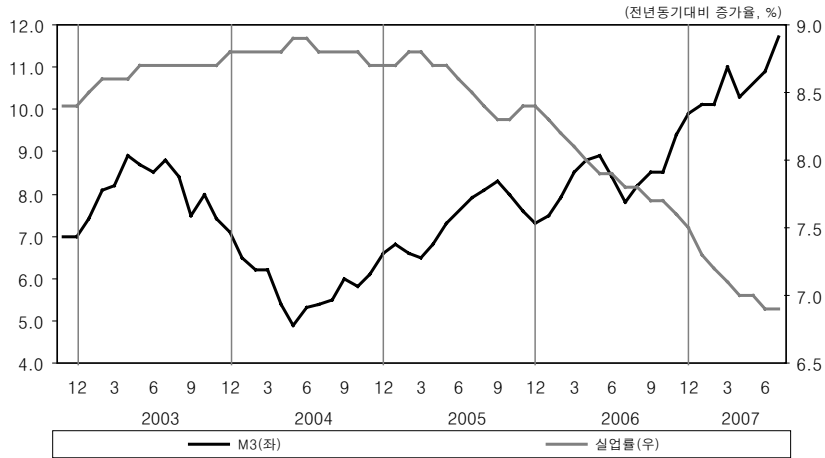
미국경제는 주택시장 경기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소매판매도 둔화되면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년 2/4분기에 주택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및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대비 연율 4.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한편 소비와 고용지표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유로경제는 낮은 실업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통화량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통화긴축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년 2/4분기

미국의 기존주택판매와 소매판매



유로의 실업률과 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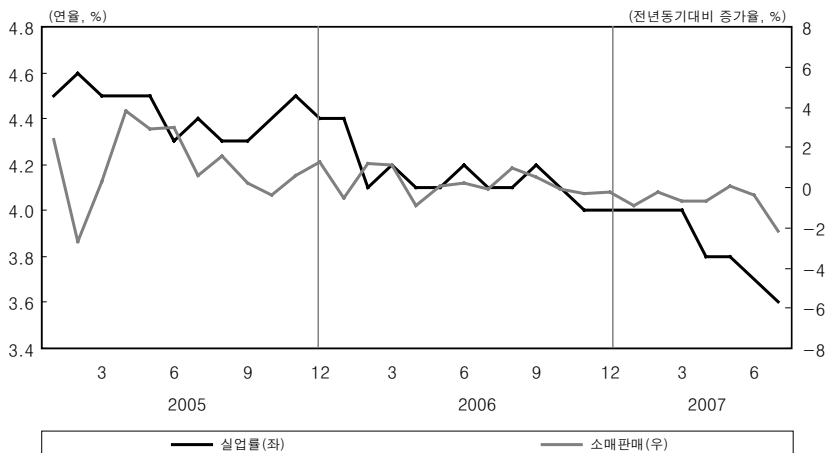


성장률이 전기대비 0.3%의 낮은 수준을 기록 하였으나, 경기상황지수 및 경기체감지수와 같은 심리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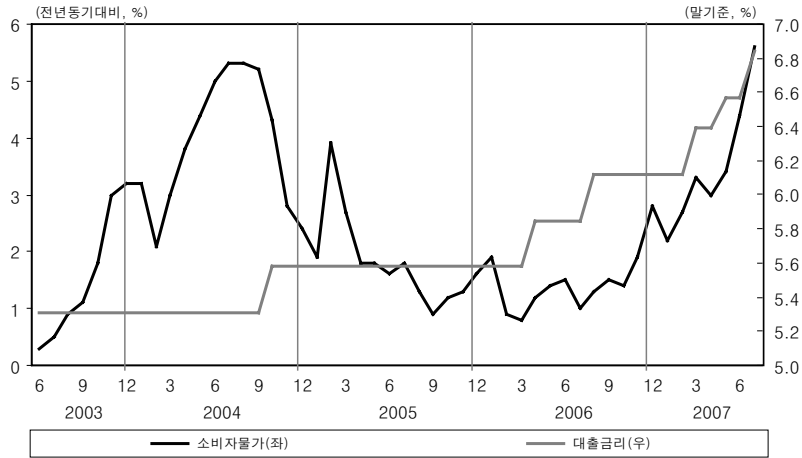
일본 경제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작년 말 이후 견실한 모습을 보이던 일본경제는 금년 2/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0.5%의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도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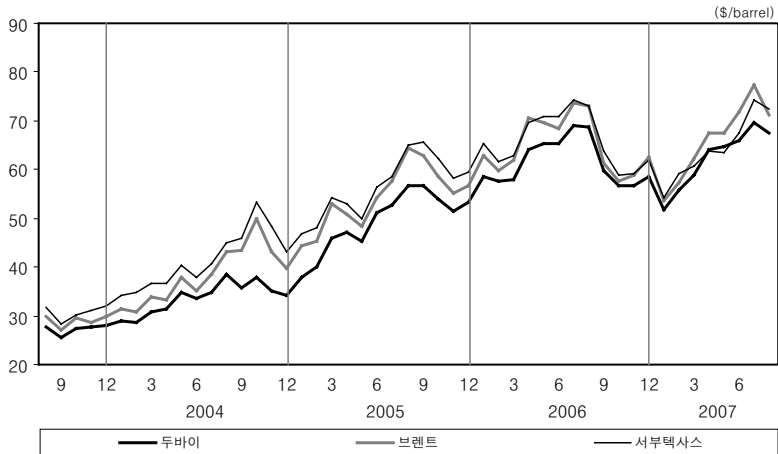
일본의 실업률과 소비판매



중국의 물가상승률과 금리



국제유가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금

리의 점진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이 점차 가속화되며 금년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6%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